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군사를 움직인다', '그 나라의 군주'를 정자는 두 가지 일로 나누었다.

오징은 내가 군사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군사를 움직이는 것'과 '군주'를 주객으로 구분하였는데 모두 타당치 않다. "본의"에서 "'이(以)'는 '미치다'는 뜻과 같다"고 한 것이 옳다. '이기국군흉(以其國君凶)'은 바로 '군주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춘추"의 경우는 군대가 패하여 군주가 잡힌 것이다. 그러나 "춘추"는 군주가 포로로 잡힌 경우에도 군대가 패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군대가 패하였다고 하고 다시 군주가 흉하다고 하였다. "춘추"는 일이 이미 진행된 결과를 기록하여 군주가 잡혔다고 하면 군대가 패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만을 기록한 것이다. "역"은 앞으로 그러할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에서, 패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가볍고 무거운 것을 모두 들어 말한 것이다.

무망(无妄)

육이(六二)갈고 거두지 않으며 밭을 일구고 삼년된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니, 가는 곳이 있으면 이로우리라(不耕獲, 不菑畬, 則利有攸往)(불경 획, 불치여 즉, 이유스 왕).

정자와 오징은 모두 '갈지 않고 거두며 밭을 일구지 않아도 삼년된 좋은 밭이 된다'고 본다. 말은 같으면서도 의미는 다르다. 정자는 "처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고 사리의 당연함에 따른다"고 보았고, 오징은 "처음에는 구하려는 마음이 없었지만 뒤에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보았다. "본의"는 "앞서서 하는 것도 없고 뒤에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하여이 네 가지를 모두 하지 않는다고 본다. 세 설이 의리상 모두 통하기는 하지만 정설은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간다'는 말과 같고 오징의 설은 '부유하지 않고도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와 같다. 성인의 말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조사 '지(之)',자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밝혀 보겠다. 경(耕), 확(穫), 치(菑), 여(畬)가 비록 네 가지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한 가지 일의 끝과 처음, 앞과 뒤이다. 중간에 역접의 조사가 없이 위에 '불(不)'자 한 글자로 포괄하고 있으니 주자의 설이 진실로 본지를 얻은 것이다. 이는 "시경"에서 "인식하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제(上帝)의 법칙에 따른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전(象傳), 불경확(不耕穫)' 은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不耕穫, 未富也].

이는 부유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자의 설은 밭갈고 일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수확하고 삼년된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된다. 오징의 설은 밭갈고 일구지 않았지만 이미 수확과 삼년된 좋은 밭이라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되니 모두 이 상(象)과 합치되지 않는다.

구오(九五) 무망의 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으리라[无妄疾,勿藥, 有喜].이에 관해서는 '정전'의 논의가 상세하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물이 마음에 응하는 것이 병이다. 성인이 사물에 응할 때는 그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응하더라도 응한 적이 없다. 이것을 무망의병이라고 한다. '물약(勿藥)'은 삼가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자(告子)가 아득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생각이 싹트면 굳세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부동심(不動心)으로 여긴 것과 석씨가 인륜을 멸하고 세상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형상세계에 약을 쓰지 말라는 경계를 범한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병'이란 이치에 따르지 않아 해(害)가 됨을 일컫는 것이다. 마음이 물에 대하여 비록 안과 밖이 있지만 그 이치가 일치하여 정녕안과 밖의 사이가 없어 물이 와서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이 가서 반응하는 데는 본디 당연한 법칙이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체(體)가 되고 물에 응하는 것은 용(用)이 되어 각각 그 이치에 따라 순응하니 어찌 순조롭지 않아 병이 되는 것이 있겠는가? 다만 보통 사람의 마음이 욕(欲)에 가리우고 이치에 어두우므로 순응하지 못하고 집착하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어찌 외물이 마음에 응하는 것을 곧 병으로 볼 수 있겠는가? 성인의 마음은 혼연(渾然)한 천리(天理)여서 사물에 응할 때도 '천에 따라 움직이고',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모두 절도에 맞으니 이른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에 해당한다. 나에게 있는 실심(實心)이 자연스레 저의 실리(實理)에 합치하고 천가지 만가지 변화에 두루 응하고 세밀하게 합치하니 사물과 나의 사이에천리가 유행하여 정녕 피차 내외의 사이가 없다. 정말 오징의 설과 같다면 성인의 마음에 안과 밖의 차이가 있고 사물에 응할 즈음에 마음속이 막막하여 아무 것도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에 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만 가지 변화에 반응하면서 정성스런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 없이 한갓 구차하게 물을 따르니 마음과 자취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는 오히려 고자의 아득함과 석씨가 적멸에 빠지는 병폐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이것을 통해 저들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또 하물며 이 효의 상 어디에 사물에 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억지로 이렇게 주장하는가?

오징은 애써 외물을 끊어 버리고자 하나 마음에 누가 없을 수 없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만, 사물은 끊어 버리려 해도 끊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는 애써 끊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안으로 누가 없을 수 없고 밖으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마음에 항상 불안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성인은 안으로 무심하면서 밖으로 사물에 응할 수 있으니, 이것이 마음에 누가 되는 병에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석씨의 이른바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서 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선유(先儒)들에 의해 비판된 견해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64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6〉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3.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망국한지 10년만인 기미년(1919) 3월 1일 정오에 우리의 선열 손병희 선생 등 33인은 우리 2천만 민족 (당시)을 대표하여 세계만방에 조선 자주독립을 선언한 이날부터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3천리 금수강산의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가 총궐기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적수공권으로 왜적의 군경탄압을 항거하자 궁흉극악한 왜놈들은 3·1운동에 참가한 애국청년 남녀를 학살한 수효가 수 만 명에 달하였고 투옥한 자가 십여만에 달하여 3천리 금수강산은 돌연히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변하였으며 남북만주 중국 러시아령 연해주에 모인 애국지사와 적국 일본에서 유학하는 애국청년들도 열렬히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맹렬히 권유하였고 그해 4월에는 상해 불란서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현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4. 우리 민족은 수 만년 역사 이래로 가장 잔혹 불리한 조건하의 우리 선배들은 민족의 생존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비절참절한 각고의 노력을 결속한 결과 극악무도한 왜놈들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조국광복의 기초를 잡게 된 것도 실로 위대한 기미년 3·1 독립운동의 기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5. 친애하는 50사단 장병 제군들이여! 국가흥망은 필부에 달렸다는 성현의 오래된 훈화가 있는데 40여 년 전 우리민족은 이러한 굴욕과 수난 속에서도 민족정신과 전통을 죽자하고 지킨 관계로 3·1 대혁명운동이 일어났고 또한 모든 선열들이 왜놈들과 열렬히 투쟁한 소치로 해방 후 8·15 독립정부가 건립되어서 세계각국의 승인을 얻게 된 것도 실로 3·1독립운동을 기초로 인함이니 국가의 간성인 우리 청년 장병들은 이러한 3·1대혁명의 위대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철저히 통독하고 또한 이것을 승계하여 우리 군인에게 부하된 북한 김일성 매국도를 박멸하고 우리 삼천만 동포가 나날이 갈구하는 남북통일의 책임을 조속히 완수하여 우리나라를 완전무결한 자립 독립 국가로 완성하기를 맹세하면서 끝으로 만세3창을 합창합시다.

1. 배달민족만세! / 2. 대한민국만세! / 3. 우리국군만세!

또한 권준 장군은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인 1954년(단기 4287년) 5월에 구한말 민긍호(閔肯鎬, ?~1908) 의병장에 대한 충혼탑기(忠魂塔記)를 지었다. 권장군은 국내와 중국에서 천신만고와 풍찬노숙하며 스스로 일제의 왜적들을 물리치고,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건군의 주역이자 당시 장군으로서 약 50년 전(1907년 8월~1908년 2월 말)에 당시 강원도에서 가장 세력이 큰 의병장으로서 강원도·경기도·충청도·경상도 등지에서 1백여 차례 전투를 일본군과 경찰들을 처단하고 장렬하게 순국한 민긍호 의병장의 충혼탑 기문을 지을 때의 심정은 남달랐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다음은 권장군 '충혼탑기'인데, 원문은 붓으로 쓴 친필 국한문 혼용 사진본을 한문은 한글 뒤에 ( )에 넣어 원문에 충실하였다.

"오호(嗚呼)라 공(公)은 불행(不幸)히 이조말엽(李朝末葉) 쇠퇴(衰頹) 할 때에 탄생(誕生)하여 국가안위(國家安危)의 중책(重責)을 쌍견(雙肩)에 걸머지고 임무(任務)를 충실(忠實)히 수행(遂行)하든 중 내(內)로는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충만(充滿)하고 외(外)로는 왜구(倭寇)가 우리나라 내정(內政)을 간섭(干涉)하여 강제(强制)로 원주(原州) 진위대(鎭衛隊)를 해산(解散)할 때에 공(公)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존중(尊重)함으로 의기(義旗)를 고양(高揚)하고 항거왜적(抗拒倭敵)하니 가위(可謂) 퇴파(頹波)의 지주(砥柱)이요 경하(傾廈)의 거목(巨木)이라 공(公)의 정충보국지대절(精忠報國之大節)은 후생(後生)의 보감(寶鑑)이오 조국광복(祖國光復)의 기초(基礎)이나 석호(惜呼)라 구국구민(救國救民)의 대지(大志)를 미성(未成)하고 신선순국(身先殉國)하니 충혼의백(忠魂義魄)이 의귀(依歸)할 바가 없어서 치악야월(雉岳夜月)과 봉천추우(鳳川秋雨)에 상필음읍방황(相必飮泣彷徨)이라 후학(後學)은 군려(軍旅)의 직(職)을 부하(負荷)하고 마침 이곳에 부임(赴任)하여 석일경모(昔日敬慕)의 성(誠)으로 장병제군(將兵諸君)과 더부러(더불어) 유해(遺骸)를 예장(禮葬)하고 또한 당지각군정기관장(當地各軍政機關長)의 찬조(贊助)를 득(得)하여 충혼탑(忠魂塔)과 충렬정(忠烈亭)을 건립(建立)하고 제전(祭田)을 치(置)하여 춘추향사(春秋享祀)를 봉(奉)케 해서 공(公)의 충혼(忠魂)을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도 위로(慰勞)코저 하나이다."

단기(檀紀) 四二八七(서기 1954)年 五月 吉日 / 후학(後學) 육군준장(陸軍准將) 권준(權晙) 근지(謹誌)

본보('안동권씨대종보')를 읽으시는 일족(一族)분들과 여타 독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긍호 의병장에 대한 사전과 참고자료를 보충하여 드립니다.

민긍호(閔肯鎬, ?~1908) 한말의 의병장. 본관은 여흥(驪興). 서울 출신. 1897년 강원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正校)를 지내고, 뒤에 춘천본견대에 전입. 1901년 특무정교가 되고 원주진위대에 전입되었다. 1907년 8월 일제가 원주수비대를 해산하려 하자 약 3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원주 우편취급소의 일본경찰을 습격, 3시간 동안 격전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5)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而)

제18장

섭공[葉公]이 자로[子路]한테 공자[孔子]의 대해서 물었으나 자로는 거기에 답변 하지 못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너는 왜 그의 사람됨이 학문에 발분[發憤]하면 식사하는 것도 잊고 그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서 장차 늙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원문]

葉公이 問孔子於子路거늘 子路不對하되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에 發憤忘食하며 樂以忘憂하여 不知老之將至云爾오.[섭공이 문공자어자로거늘 자로불대하되 자왈 여해불왈 기위인야에 발분망식하며 낙이망우하여 불지노지장지운이오.]

[이해]

섭공[葉公]은 초[楚]나라 대부[大夫]로 현윤이던 심제량[沈諸梁]. 자는 자고[子高]이다. 공은 참칭[僭稱]. 자로는 스승 공자의 인품에 대해 섣불리 대답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이나 공자는 자기가 얼마나 배우기를 좋아하여 지극하게 몰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이러주지 그랬냐고 말하고 있다.

제19장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자.

[원문]

子曰 我非生以知之子라 好古하여 敏以求之者也로다. [자왈 아비생이 지지자라 호고하여 민이구지자야로다.]

[이해]

자기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남다른 천재가 아니고 꾸준히 도를 깨우치기 위해 부지런히 각고 노력해서 경험과 실증[實證]을 통한 수량으로 기질[氣質]을 완성 했다는 뜻이다.

제20장

공자는 괴이[怪異]한 일과 용력[勇力]과 난동[亂動]질과 귀신[鬼神]에 관하여는 말하는 일이 없었다.

[원문]

子不語怪力亂神이러시다. [자불어괴력란신이러시다.]

[이해]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모두 정리[正理]대로 궁구[窮究]하여 명학 함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것들로서 공자가 평소 비현실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멀리 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21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더라도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들의 좋은 점을 가려서 따를 것이요. 그 들의 나쁜 점을 가려서 내 잘못을 고쳐라.

[원문]

子曰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以從之요 其不善者以改之니라. [자왈 삼인행에 필유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종지요 기불선자이개지니라.]

[이해]

세 사람이 통행하면 그 중에 내가 하나고 하나의 선[善]과 하나의 악[惡]이 남게 되어 그들 두 사람의 존재가 모두 나의 스승의 해당될 여지를 갖게 됨으로 장점을 본 받아 따르고 단점은 거울삼아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라는 말이다.

제22장

공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내게 덕을 부여하였으며 환태가 그처럼 군들 어쩌겠느냐.

[원문]

子曰 天生德於予시니 桓魋其如予何리오.[자왈 천생덕어여시니 환퇴기여 여하리오.]

[이해]

송나라 사마환퇴가 공자를 제거하려하자 하늘이 부여한 덕을 지니고 그것을 현양하려는 자신을 위해하려 함은 곧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그런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자궁 심을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다.

제23장

공자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는 것이 있다고 여기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라곤 없다. 나는 어떤 행동이든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나이다."

[원문]

子曰 二三子는 以我爲隱乎아 吾無隱乎爾로다 吾無行而不與二三子나 是丘也니라.[자왈 이삼자는 이아위은호아 오무은호이로다 오무행이불여이삼자나 시구야니라.]

[이해]

많은 제자들이 공자의 도가 너무 높고 깊어서 따라잡지 못하는 까닭으로 무슨 비결이라도 몰래 감추고 사용해가며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의혹을 품는데 대해 항상 드러나 있는 천연 그대로 외에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공자의 설명이다.

제24장

공자는 항상 네 가지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학문과 실천과 성실과 신의가 그것이다.

[원문]

子以四敎하시니 文行忠信이니라. [자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니라.]

[이해]

학문의 정수 도덕의 실천. 성실에 확립. 신의의 결행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려될 경우 완성된 인품의 도야를 기대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인 까닭이다.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解說 (立敎篇)

●范益謙座右銘에 曰(범익겸좌우명 에 왈) 一 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일 불언 조정이해변보차제)요, 二 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이 불언주현관원장단득실)이요, 三 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삼 불언중인소작과악지사)요, 四 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사 불언사진관직추시부세)요, 五 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오 불언재리다소염빈구부)요, 六 不言淫媟戱漫評論女色(육 불언음설희만평논여색)이요, 七 不言九覓人物干索酒食(칠 불언구멱인물간색주식)이요, 又 人付書信(우 인부서신)을 不可開坼沈滯(불가개탁침체)요 與人拜坐(여인배좌)에 不可窺人私書(불가규인사서)요, 凡入人家(범입인가)에 不可看人文字(불가간인문자)요, 凡借人物(범차인물)에 不可損壞不還(불가손괴불환)이요, 凡喫飮食(범끽음식)에 不可揀擇去取(불가간택거취)요 與人同處(여인동처)에 不可自擇便利(불가자택편리)요, 凡人富貴(범인부귀)를 不可歎羨詆毁(불가탄선저훼)니 凡此數事(범차수사)에 有犯之者(유범지자)면 足以見用心之不正(족이견용심지부정)이라. 於正心修身(어정심수신)에 大有所害(대유소해)라 因書以自警(인서이자경)하노라.

해설: 범익겸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에 대한 이해와 변방에 대한 보고와 관직의 임명(任命)에 대하여 말 하지 말 것이며, 둘째 주현(州縣)의 관원의 장단(長短)과 득실(得失)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며,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 것이며, 넷째, 벼슬에 나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 하지 말 것이며, 다섯째, 재리 (財利)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富)를 탐하는 것은 말하지 말 것이며, 여섯째, 음탕(淫蕩)하고 난잡(亂雜)한 농 짓거리나 여색(女色)에 대한 평논(平論)을 말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주식(酒食)을 토색(討索)하는 것을 말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이 부치는 편지를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된다.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이 만든 글을 보지 말 것이며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이것을 손상(損傷)시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음식을 먹을 때 가려서 먹지 말 것이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편리만을 가려 취하지 말라. 무릇 남의 부(富)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모름지기.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犯)하는 자가 있으면 넉넉히 그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데 크게 해되는 바가 있는지라.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참고: 범익겸(范益謙)⇒인물 미상(未詳)임. 范→성 범, 益→더할 익, 謙→겸손할 겸, 조정(朝廷)⇒지금의 정부. 변보(邊報)→주(州)와현(縣), 州→고을 주, 縣→고을 현, 관원(官員)⇒벼슬아치. 사진(仕進)⇒벼슬에 나가는 것. 추시 (趨時)⇒기회를 따라서. 趨→달아날 추, 부세(附勢)⇒세력에 아부하는 것. 附→붙을 부, 염빈(厭貧)⇒가난을 싫어하는 것. 厭→싫어할 염, 貧→가난할 빈, 음설(淫媟)⇒음탕한것, 淫음란할 음, 媟 깔볼 설, 戱慢(희만)⇒희롱하는 것, 戱→희롱할 희, 干→방패간, 줄기 간, 索→찾을 색, 침체(沈滯)⇒더디게 만드는 것, 沈→잠길 침 , 滯→막힐 체, 慢→거만할 만, 구멱인물(求覓人物)⇒남의 물품을 차지하려는 것, 求→구할 구, 覓→찾을 멱, 干索酒食(간색주식)⇒술과 음식을 토색하는 것, 병좌(幷坐)⇒나란히 또는 함께 앉는 것, 幷→아우를 병, 坐→앉을 좌, 규인(窺人)⇒사람을 엿보는 것, 窺→엿볼 규, 손괴(損壞)⇒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 損→덜 손, 壞→무너질 괴, 불환(不還)⇒돌려 보내지 않는다. 還→돌아올 환, 간택(揀擇)⇒가리는 것, 揀→가릴 간, 擇→가릴 택, 저훼(詆毁)⇒헐 뜯는 것, 詆→꾸짖을 저, 毁→헐훼, 歎羨(탄선)⇒부러워하는것. 歎→탄식할 탄, 羨→부러워할 선, 喫→먹을 끽, 修→닦을 수, 坼→터질 탁,

●武王에 問 太公曰(무왕에 문 태공왈) 人居世上(인거세상)에 何得貴賤貧富不等(하득귀천빈부부등)고 願聞說之(원문설지)하여 慾之是矣(욕지시의)이로다. 太公이 曰(태공이 왈) 富貴(부귀)는 如聖人之德(여성인지덕)하여 皆由天命(개유천명)이어니와 富者(부자)는用之有節(용지유절)하고 不富者(불부자)는 家有十盜(가유십도)니라.

해설: 무왕이 태공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부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 말미암은 것이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하지 못한 자는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참고: 무왕(武王기원전 1169~1116)은⇒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로 이름은 발(發)이다. 부왕의 유업을 계승하여 아우 단(旦)과 협력하여 은(殷)나라의 폭군(暴君) 주왕(紂王)을 쳐서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주왕조(紂王朝)를 세웠다. 不等(부등)⇒같지 않다. 고르지 않다. 欲知是(욕지시)⇒이를 알고자 함. 貴賤(귀천)⇒귀하고 천한 것, 有節(유절)⇒절도(節度)가 있다. 유(由)→말미암을 유, 十盜(십도)→열가지 도적.

〈東洋의 智慧〉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 채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탐욕(貪慾)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되고 무엇이 두려우랴. -"법구경"에서-

▶정도(正道)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無道)하게 행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가장 적을 경우에는 친척마다 등을 돌리고 돕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천하가 다 따라오느니라. -"孟子"-

▶큰 지혜(知慧)가 있는 사람은 영고성쇠(榮古盛衰)를 알고 있으므로 얻었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잃는다 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운명의 변화무상(變化無常)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莊子"-